

##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

2016. 1. 27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## 목 차

I.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현황 .....	1
II. 중금리 신용대출 미흡 원인 .....	3
III.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.....	4
1.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다양화 .....	5
1-1.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..	5
1-2. 보증보험 연계 은행·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..	6
1-3. 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활성화 .....	8
2.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.....	9
3. 제도적 지원 강화 .....	10
IV. 추진 계획 .....	11

## I.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현황

- (개념)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%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

\*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, 일반적으로 4~7등급, 7~15% 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이해

- (현황)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\*가 있음에도, 중금리대 신용공급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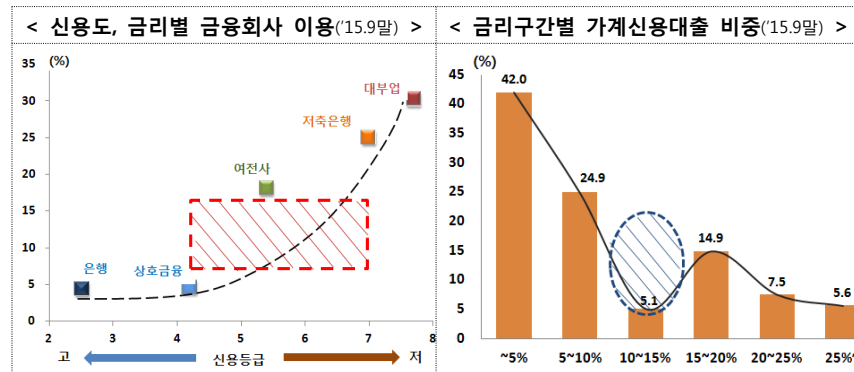
\* (NICE 통계, '15년말) 금융소비자 1,498만명 중 (1~3등급) 534만명, (4~7등급) 698만명, (8~10등급) 266만명

- ① (금리단층) 고신용자는 5% 미만의 저금리, 신용도 낮은 중·저 신용자는 20%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

\*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('15.9월말)

: 은행 4.4%, 상호금융 4.6% / 여전 18.1%, 저축은행 25.0%, 대부 30.2%

- 이에 따라, 중·저 신용자는 은행권 대출 거절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측면
- 한편, 은행·상호금융은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는 등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



\* 개인신용대출 기준

\*\* 한국은행, NICE, 여신협회 공시자료 활용 추정

\* 출처 :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('15.12월)

- ② (신용양극화) 총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증가(223→258조)하였으나,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·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

\* 특히, 은행권은 고신용자 대출 집중 : (1~3등급 대출비중) '12년말 69% → '15년말 79%

< 개인신용대출 공급규모 추이(십억원) >

신용등급	'12년말	'15년말	증감
1~3등급(고신용)	106,827	147,534	40,707
4~7등급(중신용)	85,812	85,105	△707
8~10등급(저신용)	30,335	25,455	△4,880
총계	222,974	258,094	35,119

\* NICE 통계자료 /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으로 집계, 보증부 햇살론 등 제외

-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, 중금리 상품 출시가 증가 추세

- 그러나, 아직까지 대출 총액, 1인당 대출한도, 신용등급분포 등의 측면에서 중신용자를 포함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최근 출시된 주요 상품의 총 대출잔액은 688억원 수준('15년말)

\* 특히, 은행권 상품은 대출한도(5백~1천만원)가 충분치 않고,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편

< 최근 신규로 출시된 주요 중금리 대출 상품 현황 >

기관	상품명	출시일	대출한도(백만원)	적용금리(%)
은행	농협은행 EQ론(easy&quick)	'15.12월	10	5.0~9.0
	신한은행 써니모바일대출	'15.12월	5	4.9~8.3
	기업은행 i-ONE스마트론	'15.8월	10	3.2~8.5
	우리은행 위비모바일대출	'15.5월	10	5.9~9.7
저축은행	JT친애 원더풀WOW론	'15.12월	50	12.0~19.9
	SBI저축 모바일신용(사이다)	'15.12월	30	6.9~13.5
	신한저축 신한스피드허그론	'15.9월	15	9.9~19.9
	웰컴저축 웰컴척척대출	'15.8월	5	14.9~19.9
	KB저축 착한전환대출	'15.5월	30	6.5~19.9

⇒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·확산되는 최근의 추세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

## II. 중금리 신용대출 미흡 원인

◇ 금융회사의 적극적 공급 유인 부족, 수요자 선별의 어려움 (정보비대칭)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측면

① (공급 측면) 각 업권은 대출비용(금리산정구조)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할 동기가 부족

① (은행) 건전성 악화 우려\*,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유인 부족

\* 중금리 상품으로 '05년 출시된 SC의 셀렉트론은 부실 확대로 '13년말 판매 중단

② (상호금융) 담보대출 중심의 안정적 영업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중·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\*에 소극적

\* 상호금융(새마을금고 제외)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7.6% 수준('15.9월)

③ (여전) 수신기능이 없고, 모집인에 의존하는 비용구조상 10%대 대출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측면

\* 카드사의 경우 10% 중후반 대출을 취급하나, 신용카드 소지자(1~6등급) 대상 대출만 취급하는 등 중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확대에 제약

④ (저축은행) 높은 원가구조\*, 구조조정 이후의 보수적 운영 등으로 고객 선별(screening)수단 없이는 금리인하에 소극적\*\*

\* 연체율(11%수준), 모집 비용 등에서 은행에 비해 대출원가가 높은 편

\*\* 특히, 대부업계 저축은행 등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 고금리 부과 경향

② (인프라 측면) 신용 평가정보 부족\*, 평가 시스템 미흡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의 신용도 판별이 어려운 측면

\* 대부업권 정보 등 중신용자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가 부족

○ 이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

○ 신용평가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 (risk sharing) 방식의 중금리 대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

\* 다만, 최근 우리은행-서울보증보험, 농협은행-농협캐피탈 등 연계대출 사례 등장

## III.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

### < 기본 추진 방향 >

◇ 시장조성(market building) 차원에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, 중신용자간 선별이 가능하도록 평가 인프라를 조성

① (공급경로의 다양화) 인터넷전문은행 출범,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, 연계영업 활성화 등 다양한 상품의 출현 유도

① (인터넷전문은행) 빅데이터(big data) 활용을 통해 중신용자 선별에 강점을 가진 신규 공급자로 출범

② (보증보험 연계)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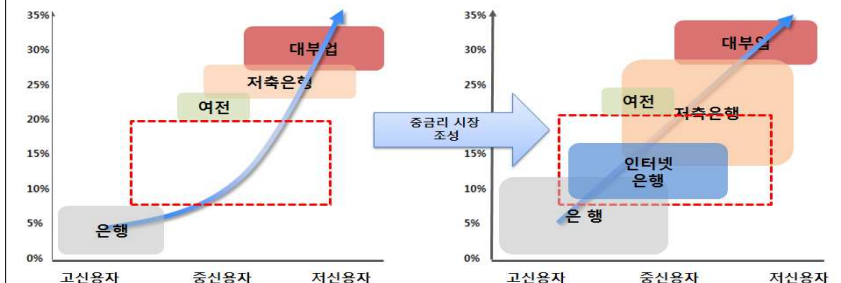
③ (연계영업)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활성화

② (인프라 조성) 신용정보 확충을 통해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확대를 뒷받침

\*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추가 공유하고,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 개선·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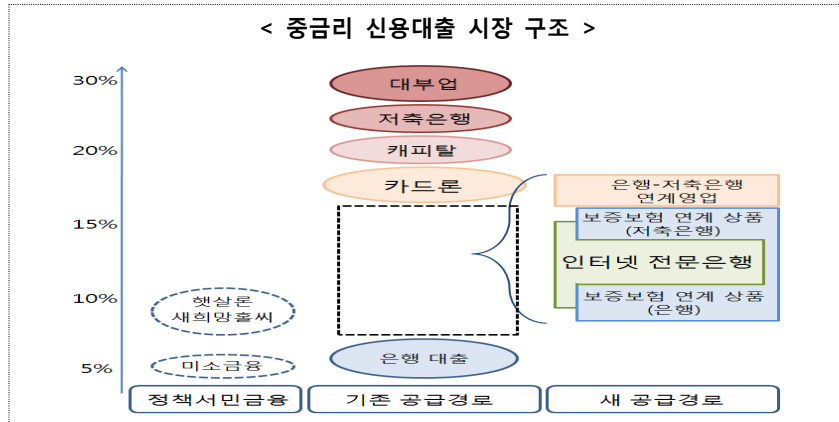
③ (제도적 지원)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

### <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변화 모습 >



## 1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다양화

- 현재 햇살론 등의 정책서민금융, 카드로·캐피탈 등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
  - 인터넷전문은행, 보증보험 연계 상품, 연계영업 등 중금리 대출 추가 공급 → 중금리 대출 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 촉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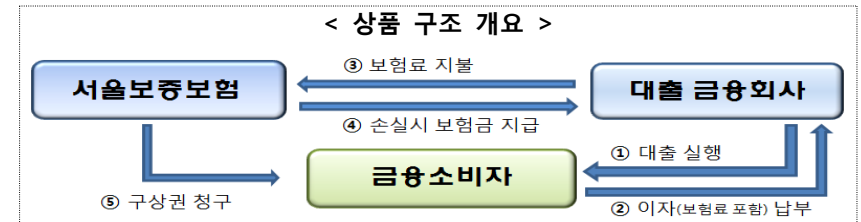
### 1-1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

- '16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기반 확대(신규 플레이어 출현)
  - \* '15.11월 예비인가(한국카카오은행, 케이뱅크 은행) → '16년 하반기(잠정) 본인가
  - 시중은행에서 원활하게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·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신용 대출을 적극 취급
  - ⇒ 향후 3년간 1.4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공급(양사 추정)
- 또한,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혁신적 상품을 공급 → 시장의 촉매제 역할 기대
  - 기존 금융권 재무정보와 함께 SNS·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평가 세분화 가능

## 1-2 보증보험 연계 은행·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 출시

- (기본구조)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,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
  - 금융회사는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,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금융회사에 보험금 지급
  - 대출자는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를 대출 금융회사에 납부
  - 대출금리 및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

\* (예시) 은행 고객은 신용도에 따라 평균 10%(보험료 4% 내외)로 대출 예상  
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도에 따라 평균 15%(보험료 7% 내외)로 대출 예상



※ 서울보증보험이 자체 구축한 '중신용자전용 신용평가모델'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 보완

- (공급규모) 우선 1조원(은행 5천억원, 저축은행 5천억원) 규모 목표
  - 추후 운용성과를 보아가며 서울보증보험사가 참여금융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확대 검토
  - ⇒ 참여 금융회사는 보증보험과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예정
- (상품내용) 고객층·원가·영업망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, 대출대상·한도·금리·판매채널 등을 이원화
  - 중신용자의 상환이력 등 신용정보가 축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상품 구조는 출시 이후에도 탄력적 운용

\* (예시) 매분기별 공급규모/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출승인기준 수정·보완

<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(안) 예시 >

은행	상품구조	저축은행
· 4등급이하 중·저신용자 중심	대출대상	· 좌동. 다만,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 중심 예상
· 보험료를 포함 10% 내외 *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·보험료 차등	금리수준	· 보험료를 포함 15% 내외 * 좌동
· 2천만원 한도 ·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	대출한도 및 상환조건	· 1천만원 한도 · 좌동
· 대면·비대면 대출 병행	판매채널	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적극활용 예상(영업망 제약, 비용절감 등 감안)

④ (손실분담) 보증보험사가 일정수준\*까지는 대출상환을 보장 하되, 연체율이 일정수준 초과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

\* (예시) 보증보험사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→ 금융회사가 보증보험사에 추가보험료 지급,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에 구상권 행사

- 보증보험사와의 손실 분담 구조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유인을 제공

⑤ (출시시기) '16년 하반기 중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 출시

-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·저축은행중앙회가 '중금리 상품 활성화'를 위한 MOU 체결('16.2월 중)
- MOU를 토대로 동 상품에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 중심의 T/F를 구성·운영('16.2월~) → 구체적 상품안 마련

⇒ (기대효과)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초기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조성 및 노하우 축적

- 상환·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에 따라 중신용자 대상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될 경우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,
- 서울보증보험사 및 금융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기반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

1-3

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활성화

(1) 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현황

-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\*으로 계열은행과 연계하여 10% 초·중반의 중금리 대출 영업을 운영 중

\* '12.8월~ / 6개 저축은행 : 신한, 하나, KB, NH, BNK, IBK

- 그러나, 저축은행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(평균 1.7등급), 은행의 유인 부족\* 등으로 활성화는 미흡(대출잔액: '15.12월말 8,637억원)

\* 업무량 증가, 민원부담 등으로 은행 직원이 연계대출 취급을 기피

(2) 활성화 추진방안

① (금융소비자의 이용 유인 확대) 연계영업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\*을 완화

\* 연계대출 연체율(평균 1.8%)과 저축은행 연체율(평균 10.8%)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

- (집중기관) 신용정보 집중시 연계대출건은 별도코드를 부여하여 일반대출과 구분관리

- (CB)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이 완화\*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체계를 변경

\* (현재) 1.7등급 하락 → (향후) 캐피탈 수준(1.1등급 하락)으로 완화

② (은행권의 적극적 참여 유도) 은행 서민금융평가\*( '16년 시행 예정)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

\* '16.1월 이후 혁신성 평가가 서민금융평가/기술금융실적평가로 대체 예정

③ (연계영업 취급회사 확대) 은행계 뿐 아니라, 비은행계 저축은행까지 연계영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

\* 현재 저축은행 중앙회는 우리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예정

④ (규제완화) 불필요한 서류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·개선

\* '15.6월 연계대출 모범규준 폐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연계대출은 기허용

## [1]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현황

-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신용평가모형이 개발·개선되는 추세이나,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할 필요
- 제2금융권은 신용평가지 일부 정보부족(대부업, 중복대출 정보 등)으로 손실율을 높게 추정 → 금리 상승 및 대출한도 하락
-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제약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 제고에 한계

## [2]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방안

## ① (정보제공 강화) 신용정보의 집중·공유 범위를 확대

- 차주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가능한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 추진

- ① CB가 보유한 대부업 이력정보(취급기관명, 대출취급액, 연체금액 등)를 저축은행과 공유(현재는 대출잔액, 연체여부 등 기본정보만 공유)
-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대부업 정보를 업권간 공유(저축은행권부터 순차적 추진)

- 저축은행과 대부업간, 저축은행간 중복대출 신청, 대출발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

\* 금융업권대부업권간 조회건수 정보 공유, 저축은행 등과 대출신청 정보 실시간 공유

## ② (신용평가체계 개선)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 제고를 지원
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신심사를 정교화할 수 있도록 지원

- ① 한국신용정보원 출범('16.1.1)으로 업권별 신용정보를 통합·분석 기반 마련
- ②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 마련 →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

- 저축은행이 다양한 여신평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평가지시스템의 다양화 및 경쟁 촉진

\* 중소형사는 중앙회 시스템(나이스평가정보)을 사용 → 회사간 평가방식이 유사

## ① (중금리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 은행,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공

- (은행)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반영

\* 중금리 대출 및 연계대출 실적을 서민금융평가의 약10% 비중으로 반영

- (저축은행) 중금리 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\* 산정시 우대 적용\*\*하는 등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 회사의 영업 활성화 지원

\* '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/ 총 신용공여' : 서울/인천·경기도, 50%↑ / 기타, 40%↑

\*\* (예) (영업구역 내 대출 15배 가중치 / (영업구역 외 대출) 영업구역 내 대출 간주 0.5배 가중치

## ② (비교공시 강화) 금융소비자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손쉽게 비교·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

- 현재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("금융상품 한눈에")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

\* 각 금융협회에서 '중금리 대출' 항목을 신설하여, 각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상품 현황 및 금리 등을 공시하고 금감원에 정보 제공

-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 세분화(5%p→2%p), 대상기간 단축(직전 3개월 평균 → 1개월) 등 비교공시 내실화('15.10월~)

## ③ (저축은행 금리운용 점검) 신용등급에 부합하는 금리로 대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

-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업무보고서(금감원)에 포함·점검('15.3월~)하고, 금리 차등화 관련 경영지도기준 신설 검토

\*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하는 회사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, 집중 점검

- 특히, 대부업계의 금리차등화 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



## IV. 추진 계획

- ① (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) '서울보증보험-은행연합회·저축은행중앙회' MOU체결('16.2월중) → 참여 금융회사 TF 구성·운영('16.2월~) →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 출시('16.하~)
- ② (기타사항)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하고, 하반기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

### < 세부 과제 및 추진 일정 >

정책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<b>1.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</b>		
· 인터넷전문은행 출범	본인가	'16.하
<b>2.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</b>		
· 세부방안 마련	MOU / TF 운영	'16.2월~
· 상품 출시	순차적 출시	'16.하~
<b>3. '은행-저축은행' 연계영업 활성화</b>		
·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	규약 개정 CB 등급체계 변경	'16.하
· 은행 연계대출실적 서민금융평가 반영	매뉴얼 개정	'16.상
· 비은행계 저축은행 연계영업 확대	중앙회 업무제휴	'16.상
· 불필요 서류부담 완화	표준계약서 마련	'16.상
<b>4.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</b>		
· 대부업 정보 공유 범위 확대	CB 대부업협의회 협의	'16.하
· 중복대출 파악 /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	CB 대부업협의회 협의 CB 시스템 개선	'16.하
· 비식별화 지침 마련	지침 마련	'16.상
·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 다양화	중앙회 협의	'16.상
<b>5.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</b>		
·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실적 반영	매뉴얼 개정	'16.상
·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에 가중치 부여	감독규정 개정	'16.하
· 중금리 대출 상품 비교공시	금감원 사이트 개편	'16.하
·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 점검·감독	중점대상 선정·점검	'16.상~